

임실군, 농업미생물 본격 공급

농가 수요 조사 반영 5종 미생물 선정... 작물별·생육 단계별 맞춤형 보급

임실군이 고품질 농업미생물의 본격적인 생산과 공급에 돌입하며 지역 농업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실군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 농업 실현과 농업 생산성 극대화를 목표로 추진해 온 농업미생물 공급 사업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군이 역점으로 추진해 온 핵심 농정 과제로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 조성과 농가 소득 증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은 사업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위해 지난 1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통해 농업미생물의 활용 방법과 기대 효과를 집중 홍보하고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을 통해 농가의 이해도를 높인 만큼, 2월부터 연말까지 본격적인 미생물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미생물은 농가 수요 조사를 반영해 △고초균(2종)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 총 5종의 미생물을 선정해 작물별·생육 단계별 맞춤형 보급을 통해 현장 활용도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농가의 경영비 절감, 생산성 향상,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 구축이라는 세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임실군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 농업 실현과 농업 생산성 극대화를 목표로 추진해 온 농업미생물 공급 사업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특히,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생물 공급 가격을 실제 생산비의 20% 수준으로 책정했다. 포장재를 포함한 가격은 20당 500원(11당 250원 꼴)이며, 농가 용기를 지참하는 분주 방식의 경우 11당 200원으로 더욱 저렴하게 제공된다.

이는 도내 농업미생물을 유상 공급하는 주요 시·군과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관내 농가의 영농비 절감과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정적인 공급을 뒷받침할 생산기반도 탄탄히 구축했다.

농업미생물배양센터는 최신 배양 설비와 전문 인력을 갖추고 체계적인 생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고품질 미생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가격 경쟁력과 품질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업미생물 공급은 미생물 배양동(임실군 신평면 대리로 154-5)에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심 민수는 "농업미생물의 생산·보급은 농가 경영비 절감과 친환경 농업 확대를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투자를 지속 확대해 임실군 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가 시민의 생활 불편을 현장에서 신속히 해결하는 '120만원봉사대'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시민 중심 현장 민원 신속 해결

남원시, '120 만원봉사대' 본격 가동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시민의 생활 불편을 현장에서 신속히 해결하는 '120만원봉사대'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운영은 24일 이백면 폐문·효촌마을을 시작으로 연간 150회에 걸쳐 300개 마을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현장 민원 처리와 이등 발레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초고령화 사회인 지역 특성을 반영해 '찾아가는 행복 미용 서비스'를 새로 도입, 고향사랑기금을 활용에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남원시지부와 함께 추진하는 이(미)용 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미용실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 가정을 전문 미용사가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 사업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기존의 120만원봉사대 활동 역시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된다. 봉사대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전기, 가스, 수도, 보일러, 농기계 등 생활 밀착형 점검 및 수리를 지원하며, 이등 발레방을 운영해 청소를 돕는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를 통해 취약계층의 일상 속 고통을 세심하게 살필 예정이다. 민원봉사대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세대는 남원시 대표번호(120)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현장 봉사를 통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까지 해결하겠다"며, "올해도 시민 만족 100%를 목표로 시민 중심의 봉사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결과심의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지난 23일, 시청 회의실에서 지역사회보장대표회의체 위원 26명(위원장 남원시장, 조태봉)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결과를 심의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된 연차별 시행사업 전반에 대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 성과지표 달성 여부, 세부사업별 추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 운영의 보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일과 삶이 조화로운 도시 남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 다양한 사회보장 사업들이 시민 체감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협력 기반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 확산과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개선 의견을 도출했다.

또한, 민간협력 기반의 복지 추진 성과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 협의회를 중심으로 민간 협력 체계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연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우수사례의 공유·확산과 협력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완수 임실군수 예비후보 지지자모임, 성준후 예비후보 캠프 합류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임실군수 출마를 희망했던 한완수 전 전북도의회원이 최근 지방으로 사퇴를 선언한 가운데, 이를 지지했던 대다수의 핵심관계자들이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던 성준후 예비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이들은 24일 임실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완수 전 도의원의 사퇴와 함께 타 예비후보를 지지한 것은 개인적 사유"라며 "성준후를 지지한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일



이들은 또 "한완수 전 도의원도 타 후보를 지지한 문서 서명은 개인적 판단이고 오랫동안 지지한 동지들과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며 "지지자들이 혼란을 끼친 것에 사죄를 드린

다"는 자필서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 예비후보를 지지한 이유에 대해서도 중앙정치와 정부, 전국적 인맥 네트워크를 갖춘 인물이라며 임실의 산적한 현안 해결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고 확신했다.

또 현재 임실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취약한 산업기반 등 지자체로서 소멸 위기에 놓였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 성 예비후보라는 입장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농업·농촌 치유체험관광 참가보상비 지원

순창군이 농업·농촌 자원과 치유서비스를 연계한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업·농촌 치유체험관광 참가보상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순창군 외 거주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비 일부를 지원해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별 여행객은 물론 여행사, 학교, 코메일 여행센터 등 다양한 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지원은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참가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

영된다.

2인 이상 100인 이하 단체를 대상으로 1일 체험의 경우 체험비의 50% 범위 내에서 1인 최대 1만 5천원까지 지원된다.

1일 최대 2개소 체험이 가능해 1인당 최대 3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1박 2일 체험은 참가비의 30% 범위 내에서 1인 최대 4만 5천원까지 지원된다. /순창=이영원 기자

남원시, 전 직원 대상 '언론 대응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남원시는 25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언론보도와 인격권을 주제로 언론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보도 내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언론보도와 관련한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로, 이에 따라 직무 수행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보도 관련 분쟁에 대응을 지양하고 제도적 절차에 따른 합리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원시 홍보전산과 이영미 과장은 "언론의 감시 기능을 존중하면서 공직자의 인격권과 행정의 신뢰를 지키는 균형 있는 대응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건강한 언론 소통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차 △언론보도로 인한 주요 분쟁 사례 △산전기사심의제도 이해 등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실제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오보·편파·왜곡보도 발생 시 대응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법적·제도적 구제수단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공직자가 상황 발생 시 감정적 비애, 공직자의 인격권 보호와 제도적 절차에 따른 합리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원시 홍보전산과 이영미 과장은 "언론의 감시 기능을 존중하면서 공직자의 인격권과 행정의 신뢰를 지키는 균형 있는 대응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건강한 언론 소통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취업연계형 기업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남원시 취업연계형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시는 지역 내 소규모 기업 가운데 신규 고용이 가능한 기업을 우선 선발해 △시제품 제작 △상품개발 △상품 판촉·프로모션 △전문가 자문 등을 단계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향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